



## KEC 자본, 외주화로 구미공장 죽일 텐가?

### 사측, 신제품 발표로 주가 올리고 공장투자는 거부 ... KEC지회, “애플리스 전환 막고 고용안정 쟁취한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고용안정과 구미공장 신규 설비 투자를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KEC는 최근 잇따른 신제품 발표와 테슬라 전기자동차 터치스크린에 장착하는 반도체 공급 발표로 연일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KEC는 구미공장에서 신제품 생산은 커녕 물량 축소와 전환 배치를 강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KEC가 생산물량 전체를 외주화하고 ‘애플리스’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 회사는 애플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뉜다. 애플, 퀄컴 같은 애플리스 업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파운드리는 애플리스로부터 제조를 위탁 받아 반도체를 생산한다. 대만 TSMC나 한국 삼성전자 등이다.

KEC지회는 사측이 발표한 신제품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구미공장 신규투자가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오래된 설비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회와 면담에서 “신규 투자에 대해 확신이 없다. 고부가가치 신제품은 구미공장 설비로 생산 못 해서 외주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못 박았다.

황미진 KEC지회장은 “사측은 글로벌 전력반도체 기업이 되겠다면서, 구미공장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황미진 지회장은 “KEC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고 400억 원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는 등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구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황 지회장은 “사측은 2004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2천억 원 신규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절반도 투자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어셈블리 공장을 태국으로 가져갔다” 라고 지적했다.

황미진 지회장은 “단협에 생산 오더는 사내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며 “사측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지회장은 “노동자도 엄연히 경영의 한 축” 이라면서 “구미공장 생산품목을 외주화하고 설계기능만 남긴 빈 껍데기 애플리스로 만드는 시도를 막아내고, 일자리 지키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산은, 반헌법행위 중단하고 쌍용차 지원역할 다하라

이동걸 회장 불법행위 선동 ... “마힌드라 경영진 책임 묻고 투자자 역할 해야”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자 책임 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반노동·반헌법 행위 규탄,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과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위기는 대주주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부실경영 결과”라고 규정했다. 마힌드라 인수 뒤 쌍용차가 수출 시장을 잃고, 티볼리 플랫폼과 엔진 기술을 마힌드라에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1월 22일 미국의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와 최종 매각 협상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위기의 원인으로 ▲경영진 무능 ▲대주주 무책임 ▲채권단 관리·감독 부실을 꼽았다.

노조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무쟁의와 복지축소, 임금반납 등 자구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했다”라며 이동걸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마힌드라-쌍용차 자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반노동, 반헌법 발언으로 노동자를 협박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사죄하고, 마힌드라 먹튀 행각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않은 것부터 반성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은 노동의 권리를



준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동걸은 공공기관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본분을 지키라”라고 꾸짖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산업을 개발·육성한다는 산업은행이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책은행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역할에 걸맞은 합당한 조치를 하라”라고 요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앞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땅이다”라면서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산업은행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대주주 마힌드라가 마지막 투자금까지 회수하려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이동걸 회장은 노동자들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면서 “줄속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쌍용차를 제대로 정상화하는 비전 창출을 위해 힘쓰라”라고 산업은행에 요구했다.

오민규 <노동자운동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은 쌍용차 대출 3,700억 중 1,900억이라는, 절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주채권자인 동시에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이동걸 회장은 국민 혈세로 시행한 투자 실패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마힌드라와 쌍용차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쌍용차 회생을 위한 이동걸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측이 출입을 막아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항의서한은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1월 12일 벌인 산업은행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쌍용차가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쟁의행위 금지 등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반헌법 요구로 물의를 일으켰다.